

《 私立 コン・チェルト 学院 入学願書 》

“초Fancy 아이돌★루미를 부른 건 누구~... 아, 팔로워가
아니구나.”

.....착각..했어, 미안.

『#ファンシー #루미チャン_光 #今日も_ありがとう!!!』

#외관_Outcome



눈이 부시다, 그 애를 보자마자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보통의 자연적인 빛에 의한 것이 아닌, 어딘가 인공적인 느낌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백색이라 착각할지도 모르는 옅은 눈동자는 실은 영롱하고도 다채로운 빛을 냅니다. 보석 같은 광물보다는.. 그래요, 꼭 **홀로그램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공까지 색소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인공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해 보입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백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색색의 브릿지들이 있고, 빛을 받으면 여러 빛깔로 빛납니다. 올이 가늘고 잘 관리해온 머리카락은 구불거리며 부드럽게 물결칩니다. 앞머리는 가지런히 잘랐지만, 곱슬기 탓에 종종 제멋대로 튀기는 머리카락이 있어 고민인 모양입니다. 일부는 땅아 옆머리와 함께 핀으로 고정하고, 귀 쪽의 머리칼도 조금 떼어 길게 땅아 늘어트렸습니다. 남은 풍성한 머리카락은 왼쪽으로 높게 모아 묶어서 말았습니다. 머리끈은 조금씩 다른 걸 쓰지만, 커다란 방울장식이 달린 것을 자주 사용하고, 선호합니다.

교복의 멜빵은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치마의 옆부분에는 홀로그램 천을 띠처럼 박아넣어 제 개성을 표출했습니다. 치마 뒤의 본래는 푸른빛이어야 할 천도 같은 이유로 무지개로 바꿔 단 모양입니다.

교복의 겹옷 대신 사복을 걸쳤습니다. 늘 제대로 입지 않고 이리저리 늘어뜨려 간신히 걸쳐있지만 하는 연보랏빛 겹옷은 아랫부분의 반정도가 반투명한 홀로그램 천입니다. 소매에도 홀로그램재의 긴 끈이 리본처럼 달려있습니다.

흰 양말은 좌측은 길게 올라오는 반면 우측은 통상적인 길이의 양말입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로 새하얀 색에 연보라색 포인트, 홀로그램과 와펜등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양말과 신발 모두 새것같이 하얀데, 옷을 조심히 입고 잘 관리 하는지, 그저 새것 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희고 길쭉합니다. 그리 작은 키도, 큰 키도 아니지만 본래의 키보다는 훨씬 커 보입니다. 몸의 색소가 전체적으로 옅은지, 피부또한 새하얗게 교복셔츠와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각종 장신구와 고유한 특성들 탓에 조금이라도, 어떤 빛이든지 그 아이를 비추면 어지러울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보고 있자면 눈이 아려울 정도로, 뇌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자연의 건강한 빛이 아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빛이지만, 그런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사람을 홀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169cm_46kg

*

#이름_Name

키치 일루미/銅脈 光 / Kitsch Illume

키라키라 네임입니다. Illume, 빛을 비춘다는 뜻으로 한자는 빛 광(光)자를 씁니다. 성씨는 부모와 한자는 같으나 다르게 읽기를 자처합니다. 부모는 구리광맥이란 뜻의 도마쿠씨. 그러나 일루미는 다른 뜻인 조잡한 것으로 읽습니다. 영어로는 키치, 키치패션에서 따와 그리 부르는 모양입니다.

*

#나이/학년_Age&Grade

18세/2학년

*

#성별_Gender

여성

*

#성격_Personality

ON

#귀엽게 #자신있게 #발랄하게★

“최고로 귀엽고, 최고로 환상적인 루미★ 등장이야! 오늘도 최고로 부탁할게~”

상당한 하이텐션. 그야말로 아이돌! 하면 정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밝고 통통튀는 명랑함에 조금 과장된듯한 몸짓, 자신감 넘치면서도 또 타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선을 지키는, 타고난 아이돌 같은 성격입니다. 부러 반말을 사용해 귀여움을 강조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본인을 '루미'라고 지칭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의 행동입니다.

이런 모습에는 무서우리만치 틈이 없습니다. 본연의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 말, 이미지입니다. 가장 대중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미지, 그렇습니다. 확신있고 자신감이 넘쳐야하되 자만하지 말아야하고, 친근하되 예의 발랄야 합니다. 또, 본인의 재능을 강조하기보단 열심히하는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보기 좋겠죠. 그런 대중의 아이돌에 대한 이미지를 모두 모아둔 것이 일루미의 무대 위 성격이었습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 학교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소수 비공개계정과는 다른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반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귀여운 문자로 만든 표정부터 색색의 다양한 이모티콘, 잔뜩 붙은 느낌표까지. 그저 sns글인데도 귀엽고 알록달록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악성 댓글이 아닌 이상 본인의 글에 달린 댓글도 모두 읽고 최대한 답해주려하는 모양입니다. 문자 메시지도 무시하는 평소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심하고 상냥하며 가끔은 제멋대로지만 귀여운 면모가 있는, 그런 아이돌을 연기합니다.

OFF

#내향적인 #개인주의 #겉도는

꼭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다가오는 사람을 쳐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의사도 없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식의 태도, 종종 간단한 답변 정도는 해주는 모양이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멀어졌고, 이에 대해선 어떠한 불만도 없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귀찮을 뿐이에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관계만 맺습니다. 그마저도 썩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 자체와 잘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죽을 것 처럼 구는 사람들. 그야, 혼자 있는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종종 타인에게 관심을 표할 때가 있는데, 이는 종종 사람임에도 흥미로운 점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혹은 이유가 궁금한 일들은 간혹 묻고는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지만,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무관심한 #멍한 #무감각한

위에서 말한 성격과 함께라 더욱 심해보이는 이 성격은,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기도 합니다. 귀마개로 귀를 꽉 막고 눈을 반투명한 천으로 가려버린 것 처럼 주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데, 이 때는 바로 옆에서 불러도 반응이 조금씩 늦습니다. 아니, 그냥 평소에도 그리 반응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말이 늦어진다 싶으면 금세 시선을 거둬버리고 다시 본인의 할 일을 하거나 멍한 상태로 돌아가버립니다.

남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도 잘 느끼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나 자신(정확히 말하자면 그날의 점심메뉴이지만)입니다. 그럼에도 지식적인 욕구는 꽤 강해 위에서 언급했듯 질문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만 듣고, 이외는 흘려듣는 모양입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긴 편인데, 이 때문인지 멍하니 있는 것 같아보입니다. 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시간은 잘 없는 모양입니다. 터무니없는 공상부터 구체적인 미래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이 습관은 일루미에게는 거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본인도 즐기는 듯하니 크게 상관 없는 것 같지마는 그 시간에는 도저히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사실 생각하지 않을 때도 그리 듣는 편은 아니지만요) 문제가 없다고는 말 못합니다.

#느긋한 #여유로운 #태평한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변환경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성격 탓일까요? 잘 동요하지도 않고 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여유가 넘칩니다. 어떻게 보면 느릿하고 게으른 행동이지만, 좋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본인의 일임에도 제삼자인 것처럼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정 탓에 여유도 부릴 수 있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모양이지만, 어쩐지 친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저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줄 때도 있다하니 말 다했죠. 때문에 일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나 이유모를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꼭 그런 일들이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둔감함에 더해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멍기적 멍기적, 무언가 하나 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나 일단 결심하면 시작은 결단있습니다. 결심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유일하게 빠른 것은 휴대폰 타자입니다. 다른 행동이 느린만큼 타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늘 하는 일이 그것이니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직설적인 #단호한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았습다. 늘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행동 또한 직관적입니다. 항상 대답도 명확하게 좋아 혹은 싫어, 응 혹은 아니로 갈립니다. 가끔씩 얼버무리는 것은 본인이 잘 모르는 것에 한정됩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묻는게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 종종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솔직히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행동이지만, 좋지 않은 말에도 그것이 적용되니 문제입니다. 본인의 단점을 명확히 아는 만큼 타인의 단점도(관심이 있다면)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 종종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일은 꽤 드물지만, 관심이 없다는 것조차 솔직하게 이야기해 상처를 주는 경우는 잦은 모양입니다.

이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있어, 상대가 이런 면모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 최대한 피해가는 모양입니다. 그 방법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때로는 침묵이 최선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

#기타_ETC.

Accent:: 1인칭은 아타시, 2인칭은 너(君) 혹은 성씨에 직책. 항상 높낮이가 단조롭고 다소 무기력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조곤조곤 담백하고 단조롭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 분명 교직에 종사했다면 수면제로 유명했을 것이라고 종종 듣습니다. 교직에 종사할 일이 없어 다행입니다. ASMR이라면 또모를까요.

Family:: 부모님과 세 자매로 총 5인 가정입니다. 그중 둘째로, 서로 나이차이가 크지 않아 다툼이 잦습니다. 그나마 일루미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방관자에 가까운 행동만 보입니다. 형제들과도 부모님과도 그리 친밀한 편은 아닌 모양입니다. 자취생활도 어쩌면 그래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SNS:: 주 사용 sns는 인스타, 닥네임은 제 이름 끝 두 글자를 따온 루미. 상당히 인기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그날의 패션이나 악세사리등의 잡담, 본인 사진이 업로드되며 동시에 공예작업을 올리는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유니피아Unipia라는 이름의 계정은 레진공예나 악세사리를 주로 작업합니다. 최근 잠깐 슬라임 쪽에도 손 대본듯한 흔적을 게시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유니콘과 유토피아에서 반반씩 따왔다고 합니다.

패션이든 공예든 홀로그램이나 클리터등 반짝이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지나치게 빛난다 싶은 물건도 있고, 일루미만의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 본인 사진 업로드 계정 만큼이나 인기 있다는 모양입니다.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탓에 공예품의 업로드는 잦은 편이 아니지만 본인의 사진은 수시로 업로드 되는 모양입니다. 늘 손에 휴대폰을 소지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Sns에서는 아이돌활동을 할 때와 같은 말투와 성격을 사용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돌로서 활동할 때 sns와 같게 행동하는 것이지만요. 사진들도 일상에서 보기 드문 미소를 띤 얼굴이나 환한 얼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들이나 팬들이 실제로 저를 알아볼 때도 늘 같은 이미지를 유지해, 종종 학교내의 아이들이 볼렸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sns의 말투를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금세 사과하며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부끄럽다는 모양입니다.

Idol:: 아이돌에 앞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잡지 모델 일을 해왔다는 모양입니다. 비율이 좋고 눈에 띄며, sns에서도 인지도가 있으니 그야말로 적합한 인재입니다. 아이돌 활동은 그 연장선으로, 잡지 모델로는 미래가 불안정하다 판단해 진로를 아이돌로 전환했다합니다. 어릴적에 조금이나마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부모님이 다양한 운동을 시키신탓에 유연하고 체력도 좋다는 듯. 발레, 방송댄스 같은 춤들부터 수영이나 줄넘기등 기본적인 운동까지 잡다한 것들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런것들이 쌓여, 춤을 잘 추는 편입니다. 평소 조금 미적미적하던 태도도 춤을 출 때는 180도 달라집니다. 힘이 있는건 아니면서도 정확히 떨어지는 몸짓은 부드러워보이면서도 시작과 끝이 명확합니다. 이런데서도 성격이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노래는 크게 흠잡을 곳없이 무뎠습니다. 건조하고 간결한 평소 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언가 칭찬할 거리도 없지만 보완해야할 점도 그리 없습니다. 아, 컨셉탓에 조금 애교섞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래봤자 본관은 어디 안갑니다.

기본적으로 sns와 같이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고집합니다. 환상속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안내자이자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가끔 엉뚱하기도 한 고등학생. 본명을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할 때는 모델로도 아이돌로도 sns닉네임과 같은 루미를 사용합니다.

아이돌을 동경했다던가, 최고가 되고싶다던가 한건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에 가깝지만, 말과는 다르게 행동은 어쩐지 이런 아이돌에 의존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아이돌 뿐일까요? 모델도 sns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존성이 느껴집니다. 모두 일루미를 이루는 것, 없어진다면 일루미는... 무엇일까요?

School Works:: 기본적으로 정해진 학교생활에는 성실히 참여하는 편입니다. 추가적인 자율활동을 하지 않는 것 뿐, 해야하는 일은 줄곧 잘 해냅니다. 성적또한 어중간한 상위권. 내키는대로 공부하는 성격탓에 유행곡이 크고 과목간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실기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라 기숙사에 들어가야했지만, 단체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자취생활이 썩 만족스러운듯 보입니다.

Love&Hate:: 좋아하는 것은 반짝이는 것, 작고 귀여운 것, 혼자 있는 시간. 유독 단 음식을 좋아하지만 양이 작아 한번에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시끄러운 사람, 머리카쁜 사람, 귀찮게하는 사람. 사람? 더해서 전화연락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잘 확인하는 편도 아니지만 전화를 걸면 거절 후 문자로 [왜?]정도가 날라오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Hobby:: 꾸준히 공예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로 레진공예를 하지만 부자재를 사 연결하는 악세서리 공예와 슬라임에도 조금씩 손대고 있습니다. 조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서도 반짝거리는 것을 있는대로 부어버린 작품들은 대중의 취향과 맞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공예에 시간을 쏟지만, 야외로 나가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놀이공원의 연간 이용권을 매해 끊고있다고 이야기 했었나요? 매 시즌마다, 혹은 끝릴 때 놀이공원에 방문해 퍼레이드와 바뀐 조형장식물들을 구경하곤 합니다. 사진은 텅입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낸 반짝이는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어찌면, 그런 면에서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Etc:: 형광펜은 반드시 연보라색과 연분홍색만 사용합니다. 늘 사용하는 제품이 정해져있습니다. 약한 결벽증. 깨끗한 흰 옷가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더러운 것과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양손잡이이나 더 자주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휴대폰에 깔려있는 카메라 앱만 9개. 그러나 새로운 것을 깔기도, 지우기도 해 유동적입니다.

*

#퍼스널 컬러_PersonalColor

#D7B4FF, #F6F6FF

*

#선관_Connection

*

#유닛_Unit

Edel Quart

조잡하고 다소 고급과는 거리가 먼 패션과 취향을 소유하고 있어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어쩌면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에델쿼츠에 속하게 된 것은, 에델쿼츠의 무대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반짝이는 것들이 뿜어내는 숨이막힐 정도의 빛에 압도되어, 큰 흥미와 동시에 강한 끌림이라도 느꼈던 것일까요.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적합한 인재일지도 모릅니다. 보컬보다는 연출에 자신있으니 적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있고 또 재능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유닛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예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유닛원간의 친목을 어려워합니다. 패어를 짜서 무대를 하는 것도 아직까지 어색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한 시간들이,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동아리_Club

도서자료관리부

사실 책을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실내활동이라는 점에서 만족스러워합니다. 구석에서 휴대폰을 하는 기술이 날이 갈 수록 느는듯.

*

#기숙사_

X

#텍스트관계

반짝이는 운명! 아니, 운명은 싫는데...

니시요츠츠지 메이사-키치 일루미

같은 유닛의 원만한 선후배 관계. 당연하면서도 또 둘의 성향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일루미는 드물게도 메이사를 선배로서 인정하고, 대할 때 꽤 관대한 편으로 보입니다. 메이사는 일루미를 열심히 뒤따라 와주고, 가까워지고싶은 후배라고 합니다. SNS도 가르쳐주고 가끔 귀여운 것을 보면 단합하기도 하지만, 메이사가 운명을 언급할 때면 일루미가 질색하고 도망가는 모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바라이로 치요-키치 일루미

이상하게도 서로 말은 잘 안하는데 잘 지내는 관계. 같은 유닛에 같은 학년, 또한 성향까지 비슷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도 조금 더 서로를 편안해하는 친구들이다.

너 머 머거? 위장약...

니시요츠츠지 리리에-키치 일루미

입학식 때 일루미를 알아본 리리에가 열심히 들이대 인스타 맞팔로우까지 한 사이. 마냥 귀찮고 싫어하는 것 같은 일루미도 또 sns성격 부분에서 많은 배움을 얻는 모양입니다. 어쩐지 서로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어찌어찌 오늘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